China Weekly

2020. 11. 13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의 내용문의 또는 구독신청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Tel : 6505-987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를 인용 또는 재배포 하실 경우 그 출처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China Weekly*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주 초점 ····· 1

□ 바이든 당선 발표 직후 중국 금융시장 반응
□ 중국 '쌍십일' 기간중 온라인 소비 급증
□ 최근 위안화의 빠른 상승과 향후 위안화 환율 방향에 대한 중국 내부의 견해
□ 홍콩 정부 물가연동국채(iBond) 발행

▣ 주요 내외신 동향····· 11

□ 거시경제 : 10월 소비자물가 0.5% 상승, 2009.10월(-0.5%) 이후 최저
□ 금　　융 : 10월 M2 증가율, 10.5%로 전월(10.9%)대비 하락
□ 외환무역 : 위안화 환율, 주 초반 하락후 반등하여 6.62위안대 유지
　　10월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각각 11.4%, 4.7% 증가

▣ 한국은행 주요 발표자료 ····· 15

□ 2020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금주 초점》

바이든 당선 발표 직후 중국 금융시장 반응

(11. 9)

1 위안화 환율 및 주가 동향

□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환율 및 주가**가 미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으나, 미 언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자 위안화 가치 및 주가** 모두 **큰 폭 상승**

○ **위안화 환율**은 개표 초반인 **11.4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중 6.75까지 상승**(위안화가치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발표**하자 하락세(위안화가치 상승)로 반전하여 **11.9일 6.58**로 **29개월만에 최저치**(2018.6.27, 6.60)**를 기록***

* 11.9일 인민은행 고시환율은 6.6123으로 3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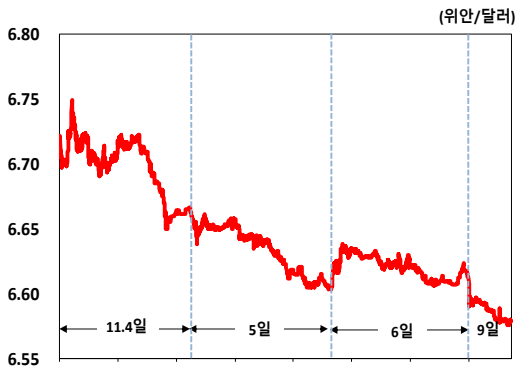
○ **주가**(상해종합지수)도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후 **향후 경기부양책 확대** 및 **미·중 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 **상승**(11.9일 +1.86%)

최근 위안화 환율 및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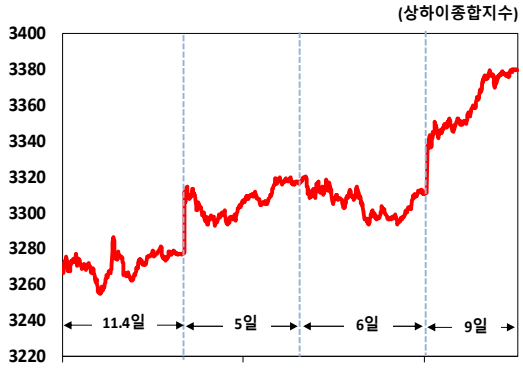
	10.30	11. 2	11. 3	11. 4	11. 5	11. 6	11. 9
인민은행 고시환율	6.7232 (-0.04)	6.7050 (-0.27)	6.6957 (-0.14)	6.6771 (-0.28)	6.6895 (+0.19)	6.6290 (-0.90)	6.6123 (-0.25)
시장환율	6.7002 (-0.15)	6.7001 (-0.00)	6.6884 (-0.17)	6.7138 (+0.38)	6.6400 (-1.10)	6.6215 (-0.28)	6.5794[2)] (-0.75)
상하이 종합지수	3224.5 (-1.47)	3225.1 (+0.02)	3271.1 (+1.42)	3277.4 (+0.19)	3320.1 (+1.30)	3312.2 (-0.24)	3373.7 (+1.86)

주 : 1) ( ) 내는 전일대비 상승·하락율(%) 2) 17:00 기준

위안화 환율 동향



상하이종합지수 동향



자료 : WIND

2 시장 평가 및 전망

(시장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미 대선 이후 **위안화 가치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 대선 종료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달러화 약세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향후 경기부양책 확대 및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3/4분기 중국의 GDP성장률이 견조한 성장세(전년동기대비 +4.9%)를 보인 가운데 최근 PMI 및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기록한 것도 위안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10월 **차이신 제조업PMI**는 **53.6**으로 2011.1월(54.5)이후 **9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 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여 전월(+9.9%)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584.4억달러로 전월(370억달러)보다 **확대**

○ 특히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데다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

(향후 전망)

□ **시장참가자**들은 중국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과 미중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 미 대선 종료 이후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위안화 및 중국 주가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에서는 관세부과 등 기존 무역제재의 일부 완화 가능성에 주목

○ 최근 중국경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 회복세도 본격화**되고 있어 **4/4분기에는 5%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

— 무역수지 흑자기조,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지속**될 전망

□ 다만 일부에서는 **단기간 급락한 달러화 가치의 반등,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에 따른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으로 위안화 강세에 대한 반전 요인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상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

중국 '쌍십일' 기간중 온라인 소비 급증

(11. 13)

1. 쌍십일(双十一) 기간중 온라인 소비 동향

□ 중국의 연중 최대 쇼핑할인행사인 '**쌍십일***(双十一)' 기간중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동**(京东) 등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

* 2009년부터 알리바바가 11.11일을 '쌍십일'(11이 두번 겹침)로 명명하고 이 날을 전후하여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으며, 현재 중국내에서는 빼빼로 데이의 번역인 '광군제(光棍節)'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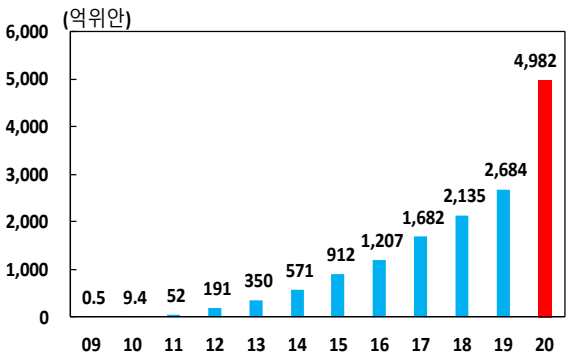
○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경우 행사기간중 **매출**이 4,982억위안(약 83.8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0년의 경우 판매호조 이외에 할인행사기간 확대 등도 매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

○ 또한 **알리바바**의 **배송건수**는 22.5억건으로 전년(12.3억건)대비 **83.1% 증가**하였으며 약 **8억명 이상**이 쇼핑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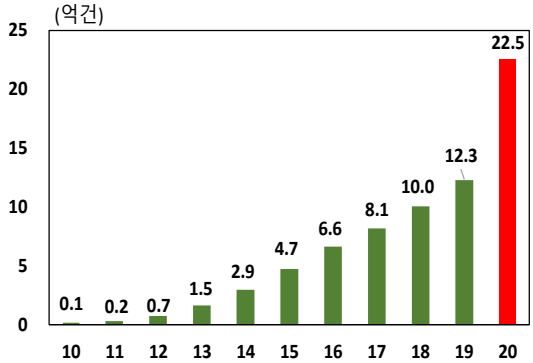
—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天猫)에서는 행사초기 **초당 58.3만건의 주문**이 폭주하였으나, 공급망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기술 및 통신망(5G 등) 확충에 힘입어 이를 **원활하게 처리**

판매금액



자료 : 알리바바

배송건수



자료 : 알리바바

ㅇ 2위 업체인 **징동**의 **매출**은 동 기간중 2,715억위안(약 4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전년동기대비 +32%)를 기록하였으며, 3위 업체인 **쑤닝**(苏宁)의 온라인 **배송건수**도 전년동기대비 **75% 증가**

□ 한편 **중국우정국**에서 11.1~11일중 처리한 **우편 및 택배 건수**가 39.7억건에 달했으며, 11.11일 당일에만 **사상 최고치**인 6.75억건(전년동기대비 +26.2%)을 처리

2. 주요 특징

□ 특히 금년 쌍십일 기간중 종래와 달리 먹거리를 중심으로 **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온라인 소비가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남

ㅇ 종전 도시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소비가 농촌지역*까지 대거 확산**되고 소득수준 향상,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고급 제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증가*

* 쌍십일 기간중 농촌지역의 사전주문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징동)

** 11.11일 유기농 쌀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20배, 유기농 우유 50배, 고급 유아용 분유는 16배 각각 증가(징동)

ㅇ 행사 참여업체들도 중국업체 위주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수입품* 판매**가 크게 증가

* 한국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대중국 판매채널로서 쌍십일의 중요성이 커짐

ㅇ 아울러 폭증하는 **온라인 소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5G 통신망 확충을 통한 **물류혁명** 및 **관련산업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음

□ **인민은행**은 시중은행, 주요 비은행결제기관 등이 **쌍십일 기간중 폭증하는 거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의 원활한 결제이행**을 지원

* 동 기간중 소액결제시스템의 초당 최고 처리건수는 10.9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2% 증가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

3. 시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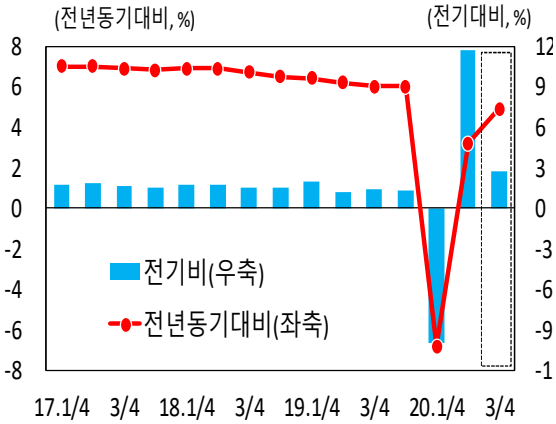
□ **시장전문가**들은 **쌍십일 온라인 소비가 큰 폭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보상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감염 우려로 **비대면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금년초 확산된 코로나19로 상반기중 중국의 **국내소비**가 큰 폭 위축되었으나, 이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최근 소비가 온라인 소비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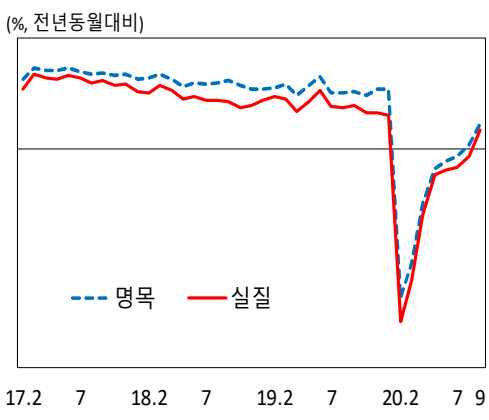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금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폭 감소(-20.5%)하였으나, 8월(0.5%)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되고 9월(3.3%)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1~9월중 인터넷판매도 9.7% 증가하여 1~8월(+9.5%)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 최근의 소비 회복세를 감안할 때 10월 소매판매는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쌍십일 기간 전후로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4/4분기 소매판매는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

GDP 성장률



소매판매액 증가율



자료 : 국가통계국

□ 한편 중국정부가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14·5)에서 **내수위주의 쌍순환**(双循环, double circulation) **성장전략을 강조**한 만큼

향후 중국경제 성장 및 산업구조 혁신에 있어서 **온라인 소비 확대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중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샤오캉(小康) 사회건설 및 탈빈곤(脱贫)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최근 **농촌지역까지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14·5에서 강조되는 **내수위주의 쌍순환 성장을 위한 저변이 확대**

○ 아울러 과거 일부 온라인 기업의 소규모 할인축제에서 시작된 쌍십일 행사가 최근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적 할인행사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국내 및 국제부문**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온라인 소비가 확산**될수록 **물류 혁명 및 산업구조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전망

최근 위안화의 빠른 상승과 향후 위안화 환율 방향에 대한 중국 내부의 견해

(상해주재원, 11. 11)

1 최근 위안화 가치의 빠른 상승과 상승 요인

□ 최근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빠른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상황과 구별

○ 금년 상반기에는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여 한때 7.1을 상회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음

○ 당시 시장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지속하여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였으나 6월 이후 대폭 반등하기 시작한 후 10월에는 6.7 부근까지 상승(5개월간 6%의 가치 상승)

□ 최근 위안화가 빠르게 상승한 주요 요인은 위안화 자체적인 강세 요인과 미 달러화의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위안화 자체 요인은 중국 경제 성장률의 안정적인 회복세와 중앙은행의 유동성 수축으로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등을 들 수 있음

* 금년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6.8%, 2분기에 양으로 전환(3.2%)하여 3분기에도 양의 성장률(4.9%)을 나타내고 아울러 최근 중국 중앙은행 총재인 이강은 통화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발언

○ 미 달러화는 2분기 미국의 경기 부진 및 무제한 QE 등으로 약세를 보이며 미 달러지수가 3월 이후 10% 가까이 하락(103→ 92)

○ 한편 시장에서는 위안화 강세 이면에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통해 미중 관계의 악화 심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⑵ 위안화의 빠른 상승에 대한 외환 당국의 대응

□ 중국 외환 당국은 두 차례(10.12일, 10.27일)에 걸쳐 위안화 가치 상승을 완화하려는 신호를 보냈음

○ 중국의 기준환율인 위안화 중간가격 결정에는 시장의 수급 상황 외에 외환 당국의 환율 수준에 대한 의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ⅰ) 10.12일 외국환은행이 선물환 매도 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준비금 비율을 종전 20%에서 0%로 조정

— 은행의 선물환 매도거래 비용 감소에 따라 고객의 선물환(주로 미 달러화 선물환)매입 거래 비용이 낮아져 고객의 선물환 매입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은행의 헤지 목적 현물환 매입거래량이 늘어나게 됨(위안화 가치 하락 효과)

(ⅱ) 10.27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의 외환거래센터는 그동안 외환시장의 군집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환율 산정 시 포함하던 경기 대응계수(중국명: 역주기 인자)를 점차 사라지게 하겠다고 발표

— 경기 대응계수인 “역주기 인자”는 2017.5월 도입되어 외환 당국이 사실상 환율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위안화(CNY) 환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수단임

⑶ 향후 위안화 환율 방향 관련 중국 내부 견해

□ 위안화 가치가 이미 6% 가까이 반등하여 추가 상승할 공간이 제한적이고 외환 당국 또한 위안화의 지속 상승세를 원하지 않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위안화 환율 추세의 방향 전환이 가능

○ 위안화 가치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미 달러화 약세 추세도 향후 안정세를 회복한 후 강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점도 위안화 환율 방향 전환 가능성을 뒷받침

□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의 현재 수준은 중국 수출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홍콩 정부 물가연동국채(iBond) 발행

(홍콩주재원, 11. 6)

□ 홍콩 정부는 Retail Bond Issuance Programme*을 통해서 100억 홍콩달러 규모의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bond, iBond)를 발행하였는데 상대적인 고금리 등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음

* Retail Bond Issuance Programme은 개인들의 채권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억 홍콩달러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가연동국채(iBond) 및 실버본드(silver bond)를 발행하고 있는데 물가연동국채는 2011년에 처음으로 발행

○ 10.23~11.5일중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물가연동국채 청약에 389억 홍콩달러가 몰렸는데 이는 2016년 물가연동국채 발행시보다 73% 증가한 수준

○ 이번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의 최소보장금리(minimum guarantee rate)가 2.0%로 결정됨에 따라 저금리* 환경하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이 크게 증가

* 홍콩달러화 정기예금(1년) 금리: 2019.12월 0.31% → 2020.10월 0.16%

** 물가연동국채 청약에 약 46만명이 참여

— 홍콩 정부는 2021~24년중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에 발행하는 물가연동국채의 최소보장금리를 2.0%로 결정

홍콩 물가연동국채(iBond)의 개요

	주요 내용
▪ 만기 및 발행금액	– 3년 만기 100억 홍콩달러
▪ 금리	– 변동금리*(floating rate)와 고정금리**(fixed rate) 중에서 높은 금리 * 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의 산술평균 ** 2020년의 경우 2.0%로 결정(2016년 1.0%)
▪ 이자지급	– 6개월 단위
▪ 최소 투자금액	– 10,000홍콩달러
▪ 기타	–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 가능

자료: 홍콩 정부

□ 또한 홍콩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실버본드(silver bond)도 발행할 예정

ㅇ 실버본드는 물가연동국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투자자가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2016년에 처음으로 30억 홍콩달러 규모로 발행

□ Edmond Lau 홍콩금융관리국(HKMA) 이사는 향후 상당기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물가연동국채 발행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홍콩 정부의 2020~21년 회계연도(2020.4월~2021.3월)중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치(2020.2월)인 1,391억 홍콩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3,000억 홍콩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

ㅇ 한편 금융시장 관계자는 물가연동국채가 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 정부가 다른 형태로 시민들에게 보조금(handing out money)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

《주요 내외신 동향》

거 시

1. 10월 소비자물가 0.5% 상승, 2009.10월(-0.5%) 이후 최저

□ 10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0.5% 상승*하여 전월(1.7%)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1~10월은 3.0% 상승하여 2019년 1~10월의 2.6%를 상회) (국가통계국, 11.10일)

* 10월 Core-CPI 상승률은 0.5%로 전월(0.5%)과 동일

○ 품목별로는 비식품가격(9월 0.0% → 10월 0.0%)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돼지고기*(25.5% → -2.8%) 가격 하락 등으로 식품가격(7.9% → 2.2%) 상승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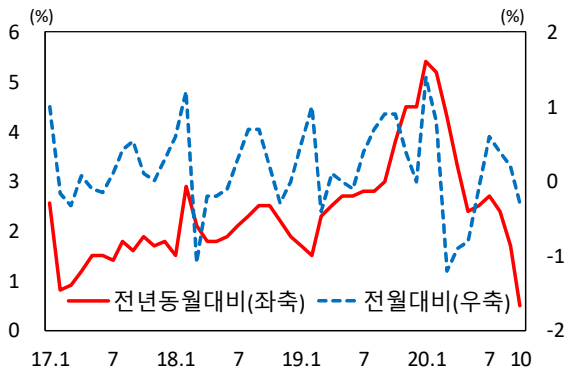
* 돼지고기 공급 개선으로 가격이 19.3월(5.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

— 소비재가격(2.6% → 0.6%)은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가격(0.2% → 0.3%)은 상승세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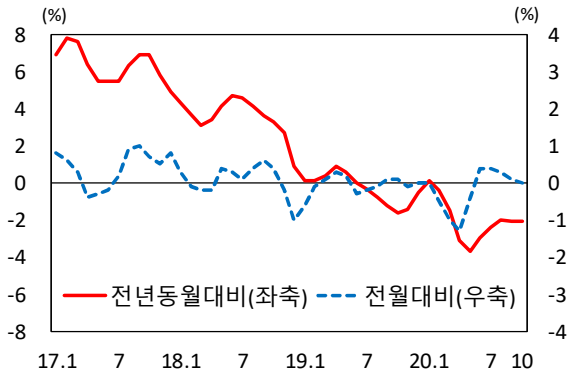
○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하여 전월(-2.1%)과 동일(1~10월은 2.0% 하락으로 2019년 1~10월과 동일한 수준)

— 생활재 가격(-0.1% → -0.5%)의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생산재 가격(-2.8% → -2.7%)은 하락폭이 축소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자료 : 국가통계국

금 융

2. 10월 M2 증가율, 10.5%로 전월(10.9%)대비 하락

□ 10월 M2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10.5%로 전월(10.9%)대비 하락하였으며, 사회융자총액 증가액(전월대비)은 1.4조위안으로 전월(3.5조위안)에 비해 축소(인민은행, 11.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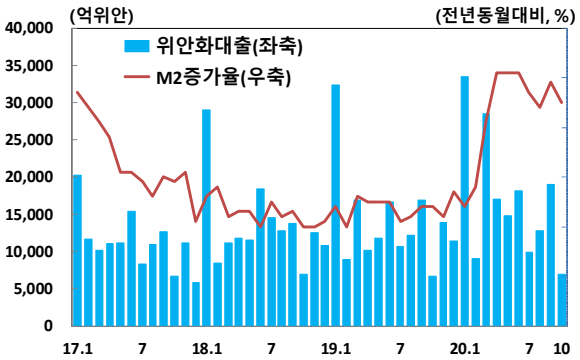
○ M2 증가율*은 위안화대출 증가폭 축소 등으로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

* 2020.3월 10.1% → 4~6월 11.1% → 7월 10.7% → 8월 10.4% → 9월 10.9% → 10월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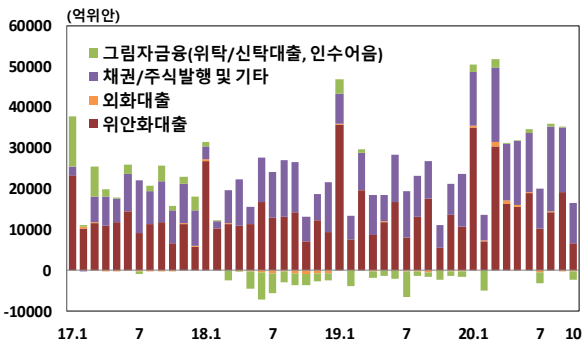
○ 사회융자총액을 부문별로 보면 위안화대출(9월 1.9조위안 → 10월 0.7조위안)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고 그림자금융*이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주식·채권발행**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외화대출*** 감소폭은 축소

* 20.7월 -2,649억위안 → 8월 710억위안 → 9월 26억위안 → 10월 -2,138억위안
** 20.7월 3,598억위안 → 8월 4,915억위안 → 9월 2,563억위안 → 10월 3,449억위안
*** 20.7월 -524억위안 → 8월 397억위안 → 9월 -303억위안 → 10월 -175억위안

위안화 대출 및 M2증가율



사회융자총액(부문별) 증감



자료 : 인민은행

□ 시장에서는 위안화대출이 지난 8~9월중 큰 폭 증가한 후 10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국경절 및 중추절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

* 최근 4년간 10월중 위안화대출(증가규모) : 17.10월 6,635억위안 → 18.10월 7,141억위안 → 19.10월 5,469억위안 → 20.10월 6,663억위안

○ 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위탁 및 신탁대출 등 그림자금융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완화정책보다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정책이 강화될 전망

외환·무역

3. 위안화 환율, 주 초반 하락후 반등하여 6.62위안대 유지

□ 위안화 환율은 미국 바이든 후보 당선 확정에 따른 미·중간 갈등 완화 기대, 양호한 10월 수출입 지표 발표(11.7일) 등으로 주 초반 6.57위안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주 후반 반등하여 전주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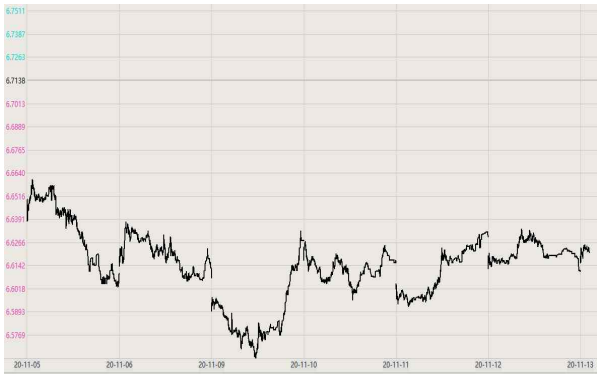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

	11. 6	11. 9	11.10	11.11	11.12	11.13
인민은행 고시환율	6.6290	6.6123	6.5897	6.6070	6.6236	6.6285
	(-0.90)	(-0.25)	(-0.34)	(+0.26)	(+0.25)	(+0.07)
시장환율	6.6215	6.5728	6.6041	6.6200	6.6297	6.6242[1)]
	(-0.28)	(-0.74)	(+0.48)	(+0.24)	(+0.15)	(-0.08)

주 : 1) ( ) 내는 전일대비 상승·하락율(%) 2) 13:30 현재

금년중 위안화 환율 및 달러지수 추이

최근 1주간 위안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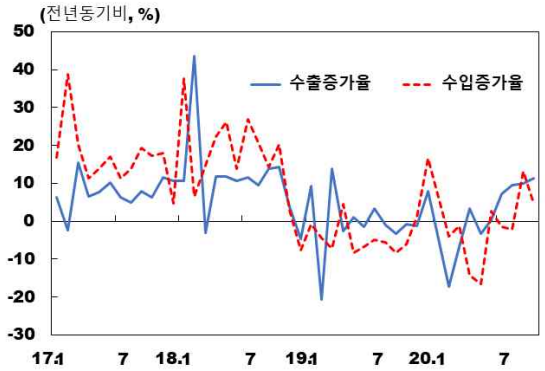
4. 10월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각각 11.4%, 4.7% 증가

□ 중국 10월 수출은 2,371.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하여 전월(+9.9%)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수입은 1,787.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여 전월(+13.2%)에 비해 증가폭 축소(해관총서, 1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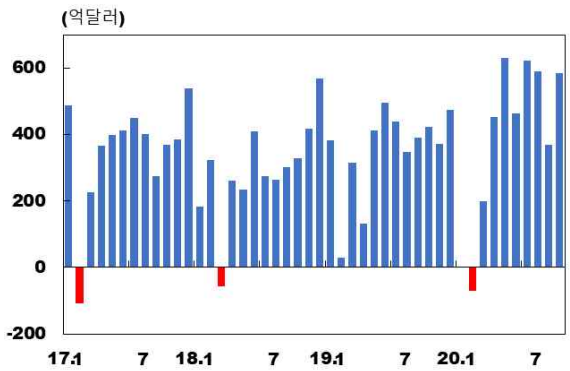
○ 1~10월로는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각각 0.4% 및 -2.3%로 수출이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전환(2019.1~9월 각각 -0.8%, -3.1%)

○ 무역수지는 전월(370억달러)에 비해 늘어난 584억달러를 기록(1~10월중으로는 3,84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

수출 및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자료: 상무부

5. 상무부, 「중국 외국인 투자 통계 공보 2020」 발표

□ 상무부는 11.5일 제3회 수입박람회에서 공표된 「중국 외국인 투자 통계 공보 2020」을 통해 2019년중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4.1만개에 이르며, 외국인투자 유입금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412.3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 13·5 기간(2016~2020년)중 총 자본유치규모가 6,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2·5 시기와 비교하여 연평균 100억달러 이상 증가한 수준

○ 2016~2019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과 수입은 약 3.9조달러 및 3.4조달러로 수출과 수입 총액의 각각 41.7%,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액은 세수총액의 19.3%인 11.4조위안 규모

○ 이에 따라 전체기업수의 3%에 불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대외무역의 2/5, 세수수입의 1/6 및 도시 고용의 1/1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

《한국은행 주요 발표자료》

2020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국제국 국제총괄팀, 외환시장팀, 11. 12)

▣ 국제금융시장은 10월중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등에 영향받으면서 주요 가격지표가 등락하였으며

미 대선 이후에는 글로벌 교역 긴장 완화 기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 등으로 선진국 금리 및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

▣ 국내 외환부문은 안정세 지속

- ㅇ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스왑레이트는 상승
- ㅇ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전환
- ㅇ 대외차입여건은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

Ⅰ. 국제금융시장 동향

1 금 리

□ **주요 선진국 금리**(국채 10년물)는 상승

○ **미국**은 10월중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한 이후 11월 들어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추가 상승

* Pfizer社의 예상을 상회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발표(11.9일)

○ **독일**은 유럽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강화* 등으로 10월중 하락하였다가 11월중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반등하여 9월말 수준을 상회

* 행사 인원 제한, 식당 영업중단 등 제한적 봉쇄조치 실시를 결정(10.28일)

□ **신흥국 금리**의 국별 움직임은 엇갈린 모습

○ **중국**은 미 대선 이후 미·중 갈등 완화 기대, **터키**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각각 상승

*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10.16일) 등

○ **남아공, 인도네시아, 러시아**는 글로벌 교역 개선 기대 등으로 하락

주요국 국채금리(10년)

(기말 기준, %)

		18년	19년	20.9월(A)	10월	11.10일(B)	B-A(%p)
선진국	■ 미국	2.68	1.92	0.68	0.87	0.96	0.28
	■ 일본	0.00	-0.01	0.02	0.04	0.05	0.03
	■ 독일	0.24	-0.19	-0.52	-0.63	-0.49	0.03
	■ 영국	1.28	0.82	0.23	0.26	0.40	0.17
신흥국	■ 한국	1.96	1.67	1.43	1.55	1.63	0.20
	■ 중국	3.31	3.14	3.15	3.19	3.23	0.08
	■ 인도	7.37	6.56	6.01	5.88	5.92	-0.09
	■ 인니	8.03	7.06	6.96	6.61	6.29	-0.67
	■ 브라질	9.24	6.79	7.59	7.90	7.61	0.02
	■ 멕시코	8.66	6.91	6.13	6.30	6.07	-0.06
	■ 러시아	8.78	6.41	6.42	6.41	6.16	-0.26
	■ 터키[1]	15.80	11.86	12.82	14.10	13.04	0.22
	■ 남아공[2]	8.88	9.03	9.44	9.32	8.86	-0.58

주: 1) 2028.3.8일 만기 기준
2) 2017.12.27일부터 2019.1.11일까지 9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2 주 가

□ **선진국 주가**는 10월중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 대선 이후 증세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약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 전환(10.1~11.10일중 +5.9%, MSCI 선진국 기준)

* 일평균 신규 확진자수(만명, 자료 : WHO)
: 미국 9월중 3.9 → 10월중 5.7, 독일 0.2 → 0.7, 영국 0.3 → 1.8

**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 인상 및 대형 IT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

□ **신흥국 주가**는 글로벌 교역 개선 기대 등으로 큰 폭 상승(10.1~11.10일중 +9.0%, MSCI 신흥국 기준)

○ **인도,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이, **인도네시아**는 「일자리 창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개선 기대 등이 상승요인으로 가세

* 일평균 신규 확진자수(만명, 자료 : WHO)
: 인도 9월중 8.7 → 10월중 6.2 → 11.1~10일 4.5, 브라질 3.0 → 2.4 → 1.7

* 기업활동 편의 보장, 외국자본 유치, 사업허가 절차 및 요구조건 단순화, 노동개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법안(Omnibus Law)이 가결(10.5일)

주요국 주가

(기말 기준)

		18년	19년	20.9월(A)	10월	11.10일(B)	B-A 변동률1)(%)
선진국	■ MSCI 지수	1,884	2,358	2,367	2,293	2,507	+5.9
	■ 미국 DJIA	23,327	28,538	27,782	26,502	29,421	+5.9
	■ 일본 Nikkei225	20,015	23,657	23,185	22,977	24,906	+7.4
	■ 독일 DAX	10,559	13,249	12,761	11,556	13,163	+3.2
	■ 영국 FTSE100	6,728	7,542	5,866	5,577	6,297	+7.3
신흥국	■ MSCI 지수	966	1,115	1,082	1,103	1,180	+9.0
	■ 한국 KOSPI	2,041	2,198	2,328	2,267	2,453	+5.4
	■ 중국 SHCOMP	2,494	3,050	3,218	3,225	3,360	+4.4
	■ 인도 SENSEX	36,068	41,254	38,068	39,614	43,278	+13.7
	■ 인니 IDX	6,194	6,300	4,870	5,128	5,463	+12.2
	■ 브라질 BOVESPA	87,887	115,645	94,603	93,952	105,067	+11.1
	■ 멕시코 BOLSA	41,640	43,541	37,459	36,988	40,405	+7.9
	■ 러시아 MOEX	2,369	3,046	2,906	2,691	2,999	+3.2
	■ 터키 ISE100	913	1,144	1,145	1,112	1,243	+8.5
	■ 남아공 ALSH	52,737	57,084	54,265	51,685	57,672	+6.3
	■ VIX 지수	25.4	13.8	26.4	38.0	24.8	-1.6

주: 1) VIX 지수는 변동폭
자료: Bloomberg

3 환 율

□ **미 달러화**는 10월중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변화 등으로 등락하다가 11월 들어 글로벌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약세(10.1~11.10일중 -1.2%, DXY 지수 기준)

○ **유로화**는 10월중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가 이후 미 달러화 약세 영향 등으로 강세 전환

*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재점검할 것임을 시사(10.29일)

□ **신흥국 통화**는 대체로 강세(10.1~11.10일중 +2.6%, JPM 지수 기준)

○ **중국 위안화**는 미 대선 이후 미·중 갈등 완화 기대,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강세

* 실질 GDP 성장률(전년대비, %) : 2020.1Q -6.8 → 2Q 3.2 → 3Q 4.9

○ **멕시코 페소화**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140억달러 규모) 계획 발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강세

* 10.1~15일 물가상승률이 4.09%(전년동기대비)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상단(4%)을 상회(10.22일)

주요국 환율

(기말 기준)

		18년	19년	20.9월(A)	10월	11.10일(B)	B-A 변화율[1](%)
	■ 미 달러 (DXY)[2]	96.2	96.4	93.9	94.0	92.7	-1.2
	(연준 지수)[3]	115.6	114.7	117.3	116.5	114.3[4]	-2.6
선진국	■ 일본 엔	109.6	108.7	105.5	104.7	105.3	+0.2
	■ 유로	1.146	1.122	1.172	1.165	1.181	+0.7
	■ 영국 파운드	1.275	1.325	1.291	1.296	1.326	+2.8
	■ JPM 지수	62.3	61.4	54.5	54.3	55.9	+2.6
	■ 한국 원	1,115.7	1,156.4	1,169.5	1,135.1	1,115.1	+4.9
	■ 중국 위안	6.879	6.960	6.807	6.688	6.616	+2.9
	■ 인도 루피	69.82	71.34	73.74	74.53	74.29	-0.7
	■ 인니 루피아	14,430	13,850	14,927	14,779	14,100	+5.9
신흥국	■ 브라질 헤알	3.881	4.020	5.610	5.745	5.415	+3.6
	■ 아르헨티나 페소	37.65	59.89	76.17	78.33	79.38	-4.0
	■ 멕시코 페소	19.65	18.93	22.11	21.18	20.32	+8.8
	■ 러시아 루블	69.35	62.04	77.63	79.46	76.56	+1.4
	■ 터키 리라	5.291	5.950	7.704	8.376	8.131	-5.3
	■ 남아공 란드	14.38	13.98	16.69	16.28	15.60	+7.0

주: 1) 미달러화는 지수 기준, 여타 통화는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강세(+)·약세(-)]
2) 주요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상 지수
3) 미 연준 작성 주요 26개 교역국 통화 대상 지수(broad)
4) Fed의 지연고시로 11.6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Ⅱ. 국내 외환시장 동향

1 원화 환율

□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하락세 지속

* ・ GDP성장률(전기대비): 2분기 -3.2% → 3분기 +1.9%
・ 경상수지 : 8월 +65.7억달러 → 9월 +102.1억달러(18.9월 이후 최대 규모)

○ **원/엔 환율** 및 **원/위안 환율**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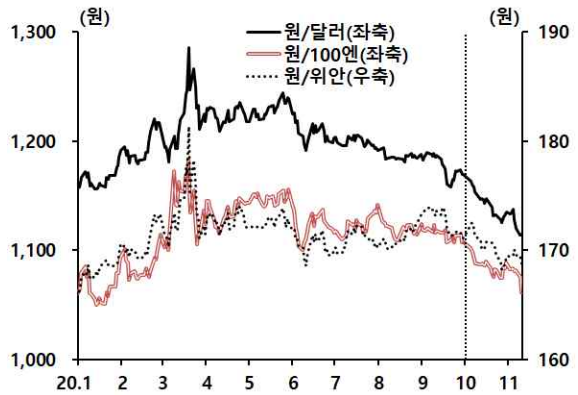
원화 환율[1)]

(기말기준, 원)

		18년	19년	20.9월(A)	10월	11.10일(B)	B-A 변화율[2)](%)
주요 환율	■ 원/달러	1,115.7	1,156.4	1,169.5	1,135.1	1,115.1	+4.9
	■ 원/100엔	1,008.8	1,059.6	1,107.1	1,089.0	1,061.7	+4.3
	■ 원/위안	162.43	165.60	171.15	169.43	168.7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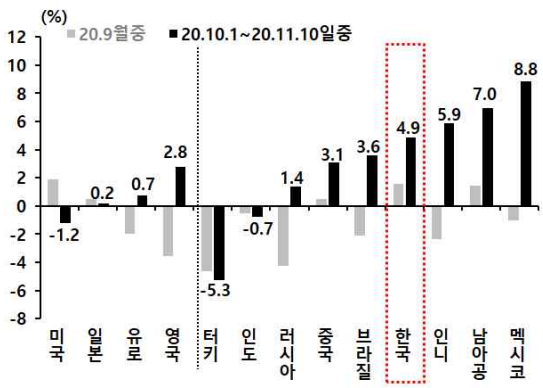
주: 1) 원/달러, 원/위안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은행간 거래의 종가 기준, 원/엔 환율은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15:30분) 기준
2) (B-A) 기간중 미달러화, 엔화(100엔) 및 위안화 대비 원화가치 변화율[(+)강세 · (-)약세]

원화 환율



자료: ECOS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1)2)3)]



주: 1) 미국은 달러화지수(DXY) 기준, 여타 국가는 미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변화율[(+)강세·(-)약세]
2) 유로화·엔화·파운드화는 뉴욕시장 16:30분 기준(Reuters)
3) 위안화는 역외시장 기준(CNH)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2 원/달러 환율 변동성

□ 10월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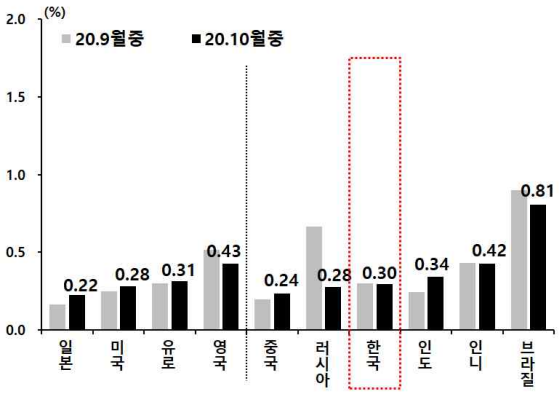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기간중 평균, 원, %)

		20.8월	9월	10월
■ 전일대비	변동폭	2.2	3.5	3.4
	변동률	0.18	0.30	0.30
■ 기간중 표준편차		3.1	9.8	11.1

자료: ECOS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성[1)]



주: 1) 전일대비 변동률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3 원/달러 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는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목적 외화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내외금리차 확대(+6bp),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일부 은행의 여유외화자금 운용 등의 영향으로 상승

○ **통화스왑금리**(3년)는 국고채 금리(+13bp) 및 스왑레이트 상승, 기업의 선물환 매입 및 외화채권 발행에 따른 외화자금공급 등으로 상당폭 상승

원/달러 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기말 기준, %)

	18년	19년	20.9월(A)	10월	11.10일(B)	B-A(%p)
■ 원/달러 스왑레이트(3개월)	-1.33	-0.92	-0.03	-0.05	0.05	+0.08
■ 통화스왑금리(3년)	1.14	0.72	-0.06	0.13	0.20	+0.26

자료: 한국자금중개, Tullett Prebon

4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

□ 10월중 국내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45.1억달러로 전월(249.7억달러)에 비해 4.6억달러 감소

* 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

○ 원/위안 현물환(-9.3억달러) 및 기타파생상품(-6.3억달러) 거래 규모 감소에 주로 기인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1)2)]

(기간중 일평균, 억달러)

	18년	19년	20년[p]	8월	9월	10월[p]	
■ 현 물 환	97.8	92.2	98.5	93.2	100.5	98.7	(-1.8)
(원/달러)	79.6	69.1	76.3	67.4	75.6	83.2	(+7.5)
(원/위안)	18.2	23.1	22.1	25.9	24.8	15.5	(-9.3)
■ 선 물 환	4.7	6.2	5.5	8.2	5.5	5.8	(+0.4)
■ 외환스왑	121.2	138.6	133.1	115.6	116.9	120.1	(+3.1)
■ 기타파생상품[3)]	21.3	25.1	25.4	23.2	26.8	20.5	(-6.3)
■ 합 계	245.0	262.2	262.5	240.1	249.7	245.1	(-4.6)

주 : 1) 외국환중개회사 경유 기준 2) ( )내는 전월 대비 증감액, p는 잠정치
3) 통화스왑, 옵션 등

5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 10월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전환**

○ **주식자금**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순유입 전환**

○ **채권자금**은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소폭 **순유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1)]

(기간중, 억달러)

	18년	19년	20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 전 체	**82.5**	**101.6**	**7.6**	**24.8**	**43.9**	**-2.2**	**-20.9**	**11.5**
(주 식[2)])	-56.6	20.0	-215.7	-4.4	13.9	-8.9	-20.8	13.8
(채 권[3)])	139.1	81.6	223.3	29.2	30.1	6.7	-0.1	-2.3

주: 1) 결제일 기준
2)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IPO) 포함 (단, ETF·ELW·ETN 등은 제외)
3) 상장채권 장내·외거래 기준(RP 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

6 대외 외화차입여건

□ 10월중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중장기 차입 가산금리**가 전월 대비 상당폭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

○ **단기차입 가산금리** 및 **외평채 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지속

대외 외화차입여건

(기간중 평균, bp)

	18년	19년	20년	7월	8월	9월	10월
■ 대외차입 가산금리[1)2)]							
<단 기[3)]>	1 (102)	3 (131)	23 (142)	3 (130)	1 (152)	1 (148)	3 (105)
<중장기[4)]>	58 (3.5)	53 (3.5)	73 (3.8)	53 (1.9)	52 (2.2)	50 (5.4)	32 (4.1)
■ 외평채 CDS 프리미엄[5)]	44	31	28	25	22	24	25

주: 1)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수출입 등 8개 국내은행 기준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Libor 대비, 만기 1년 이하 차입금액 가중평균(O/N 제외), ( )내는 가중평균 차입기간(일)
4) Libor 대비, 만기 1년 초과 차입금액 가중평균(20년 이후 RP 포함), ( )내는 가중평균 차입기간(년)
5)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CMA Datavision)

<참고 1>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18년말	19년말	20.9월말	10월말	11.10일	최근 1년간	
							최고치	최저치
금리	미국(10년)	2.68	1.92	0.68	0.87	0.96	1.94	0.51
	미국(2년)	2.49	1.57	0.13	0.15	0.18	1.67	0.11
	Libor(3개월)	2.81	1.91	0.23	0.22	0.21	1.96	0.21
	일본(10년)	0.00	-0.01	0.02	0.04	0.05	0.08	-0.16
	독일(10년)	0.24	-0.19	-0.52	-0.63	-0.49	-0.16	-0.86
	영국(10년)	1.28	0.82	0.23	0.26	0.40	0.87	0.08
	이탈리아(10년)	2.74	1.41	0.87	0.76	0.76	2.43	0.64
	그리스(10년)	4.40	1.47	1.03	0.95	0.84	3.94	0.77
	한국(10년)	1.96	1.67	1.43	1.55	1.63	1.84	1.26
	중국(10년)	3.31	3.14	3.15	3.19	3.23	3.25	2.48
	인도(10년)	7.37	6.56	6.01	5.88	5.92	6.80	5.75
	인니(10년)	8.03	7.06	6.96	6.61	6.29	8.38	6.21
	브라질(10년)	9.24	6.79	7.59	7.90	7.61	9.53	6.43
	러시아(10년)	8.78	6.41	6.42	6.41	6.16	8.57	5.59
	EMBI+ Spread	445	298	412	404	358	641	298
주가	미국(DJIA)	23,327	28,538	27,782	26,502	29,421	29,551	18,592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3,185	22,977	24,906	24,906	16,553
	독일(DAX)	10,559	13,249	12,761	11,556	13,163	13,789	8,442
	영국(FTSE100)	6,728	7,542	5,866	5,577	6,297	7,675	4,994
	한국(KOSPI)	2,041	2,198	2,328	2,267	2,453	2,453	1,458
	중국(SHCOMP)	2,494	3,050	3,218	3,225	3,360	3,451	2,660
	인도(SENSEX)	36,068	41,254	38,068	39,614	43,278	43,278	25,981
	인니(IDX)	6,194	6,300	4,870	5,128	5,463	6,329	3,938
	브라질(BOVESPA)	87,887	115,645	94,603	93,952	105,067	119,528	63,570
	러시아(MOEX)	2,369	3,046	2,906	2,691	2,999	3,220	2,113
	VIX	25.4	13.8	26.4	38.0	24.8	82.7	11.5
환율	미달러화 DXY지수	96.2	96.4	93.9	94.0	92.7	102.8	92.1
	미달러화 연준지수	115.6	114.7	117.3	116.5	114.3[1)]	126.5	114.3
	일본엔화	109.6	108.7	105.5	104.7	105.3	112.2	102.3
	유로화	1.146	1.122	1.172	1.165	1.181	1.196	1.066
	영국파운드화	1.275	1.325	1.291	1.296	1.326	1.344	1.150
	한국원화	1,115.7	1,156.4	1,169.5	1,135.1	1,115.1	1,285.7	1,113.9
	중국위안화	6.879	6.960	6.807	6.688	6.616	7.158	6.581
	인도루피화	69.82	71.34	73.74	74.53	74.29	76.97	70.81
	인니루피아화	14,430	13,850	14,927	14,779	14,100	16,655	13,589
	브라질헤알화	3.881	4.020	5.610	5.745	5.415	5.887	4.020
	러시아루블화	69.35	62.04	77.63	79.46	76.56	82.15	60.99
기타	WTI유(U$/bbl)	45.4	61.1	40.2	35.8	41.4	63.3	-37.6
	금(U$/oz)	1,282.5	1,517.3	1,885.8	1,878.8	1,877.3	2,063.5	1,454.4

주: 1) 11.6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참고 2>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추이

(기간중, 억달러)

	주식	채권	합계
2018년	-56.6	139.1	82.5
1월	30.4	21.8	52.2
2월	-36.3	23.5	-12.8
3월	1.7	9.6	11.3
4월	-20.4	6.4	-14.0
5월	-3.5	30.5	27.0
6월	-6.4	19.1	12.6
7월	1.2	13.1	14.3
8월	10.2	20.0	30.1
9월	5.6	-19.8	-14.1
10월	-40.3	-2.3	-42.7
11월	-0.1	3.7	3.6
12월	1.3	13.5	14.9
2019년	20.0	81.6	101.6
1월	33.4	-32.3	1.2
2월	15.1	-1.9	13.2
3월	0.2	13.1	13.3
4월	22.4	4.8	27.3
5월	-25.8	60.4	34.6
6월	2.2	45.6	47.8
7월	17.4	-3.1	14.3
8월	-19.5	14.3	-5.2
9월	-7.4	10.7	3.3
10월	-0.3	-5.5	-5.9
11월	-24.4	-15.2	-39.6
12월	6.6	-9.3	-2.7
2020년	-215.7	223.3	7.6
1월	3.7	40.6	44.3
2월	-26.6	3.1	-23.5
3월	-110.4	36.6	-73.7
4월	-43.2	58.2	15.0
5월	-32.7	21.0	-11.7
6월	-4.4	29.2	24.8
7월	13.9	30.1	43.9
8월	-8.9	6.7	-2.2
9월	-20.8	-0.1	-20.9
10월	13.8	-2.3	11.5